

## 「まことの光が輝いている」

“참 빛이 비친다”

### ヨハネの手紙一 2章1～11節

聖学院大学 基礎総合教育部准教授 鄭鎬碩(ジョンホソク)

京都の清水寺には「胎内めぐり」という少し変わったスポットがあります。随求堂という建物の地下に下っていくと何も見えない真っ暗の空間が広がっていますが、その中を一本の念珠の糸だけに頼って5分位歩くことで、胎内、すなわちお母さんのお腹の中が類似体験できるわけです。

私たちは普段の生活の中で暗闇というものにある程度慣れているはずですが、自分がまぶたを開けているのか、閉じているのかさえも分からなくなるくらいの濃密な漆黒の中を只々歩いていると、「本当の暗闇とはこんなものなのか」と改めて感心してしまいます。また、再び地上に戻ると、今度は「あ！こんなに明るい光があったんだ」と、まるで別世界に来たかのような不思議な感覚に包まれます。

さて、今日の聖書の御言葉に「闇が去って、すでにまことの光が輝いている」とあります。私たちには確かに太陽が与えられており、地球上の全てのいのちは、その光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ます。ところが、今この世界を見渡してみる限り、私たち人間が「真の光の中」にいるとは到底思えないというのが私の率直な感想です。なぜでしょうか。聖書には、「『光の中にいる』と言いながら、兄弟を憎む者は、今もなお、闇の中にいる」とされています。しかし今日の世の中は、まさに兄弟や隣人に対する憎しみを煽る憎悪の言説が、その勢いを増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からです。

ご存知のように、今アメリカでは「ムスリムの入国を禁止する」「メキシコとの国境に壁を作る」など過激的な発言を繰り返す人が有力な大統領候補になっています。彼に対する少なくないクリスチャンたちの支持があることも事実です。また、つい先月には人口の8割がカトリック信者だと言われるフィリピンでは「人権は忘れよう。大統領になれば犯罪者10万人を処刑して海に投げ捨てる。私が殺してやる」と堂々と公言した人物が大統領として当選されました。ブラジルでは難民を「ゴミ」と呼んだ国会議員が有力な大統領候補として浮上していますし、フランス、ドイツ、オランダなどヨーロッパの国々においても、難民受け入れ反対やEU脱退を唱える政党の躍進が極めて著しいです。世界中の政治家たちが競っているかのように、より乱暴な言葉を吐き、より排外主義的なスタンスをアピールする「憎悪と嫌悪の政治」の暗雲が低迷しているような状況です。

ところで、これは極端的発言で注目されようとする一部の政治家たちの問題だけではありません。なぜなら、私たち一人一人の心の中にも、そのような刺激的なレトリックに照応し、快感を覚え、あるいは安心するという、ある種の人間的な脆弱さが少なからずあるからです。私たちはある面において、他者に対する憎悪という陰湿な暗闇と手を結び、共謀しているように思えます。分かりやすい「外敵」

のイメージを他者たちに被せ、私たちの問題を彼らのせいにしたがる。あるいは、恐怖心を煽ることで自己防衛に走る。さらなる「隔ての壁」を作り、憎しみが憎しみを生み出す負のスパイラルのなかで、わずかな自己肯定感を味わいたがる。私たちは非常に偏屈で歪な、いわば「未成熟な生き方」に慣れちゃ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イエス様は、38年も病気で苦しんでいる人に敢えて「良くなりたくないか」と聞かれました(ヨハネの福音書5:6)。今日、私たちにとって最も重要なのは、私たちが果たして、本当に治りたい、よくなりたくないから願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困難な状況に出会ったらすぐ他人のせいにし、責任から逃れようとするならば、私たちはいつまでも治りません。良くなりません。憎しみの否定的な力が支配する闇の中に留まっていたら、決して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真の光を浴びることができません。自ら「よくなりたくない」と願ってこそ、私たちは暗闇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ます。

振り返ってみると、人類史のほぼ全てのページはあらゆる憎悪や暴力に満ちています。人が人を差別し、支配と被支配の関係が世界を覆い、その抑圧と収奪の構造の下で二つの世界大戦を経験した私たちですが、未だに精神的な成長、霊的な成熟には程遠い段階に留まっ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成熟どころか、「わたし」だけが全てであった胎児の状態を求め、どこまでも自己中心的で、どこまでも安心できそうな母親の胎内に戻ることを望んでいるかのようにも見えます。

しかし聖書が教えているように、私たちには「すでに」光が与えられています。それは、闇に勝る真の光です。いかなる憎悪の誘惑にも負けず隣人を愛することにより、新たな未来を切り開く愛の光です。赤ちゃんがえりのように暗闇へ退行していくか、それとも、光輝く成熟の道へと歩み出すか。今日の御言葉はこうした重大な問いを私たちに突きつけていると思います。

#### 〈韓国語訳〉

교토의 유명한 절 기요미즈데라에는 ‘다이나이 메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즈이구도라는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캄캄한 암흑이 펼쳐지는데 거기를 염주하나만 붙들고 5분 정도 걸음으로써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탯속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둠에는 꽤 익숙할 것 같지만 일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칠흑같은 암흑 속을 걷다 보면, 진짜 어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새삼 놀라게 됩니다. 또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태양이 주어졌고 그 빛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둘러보면 인간이 빛 속에 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지금 세계에는 이처럼 형제나 이웃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험한 말들이 한껏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고, 멕시코쪽 국경에 벽을 세우자”라는 말을 입에 담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화제입니다. 그 배후에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지지가 있지요. 또,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천주교도라는 필리핀에서는 지난 달 “인권 같은 건 잊어라. 범죄자 10만명을 바다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같은 발언을 일삼은 정치가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난민을 ‘쓰레기’라고 부른 국회의원이 급부상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은 유럽 각국에서도 난민반대, EU 탈퇴를 외치는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난폭한 폭언을 일삼고 더 배외주의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이른바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인 발언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몇몇 정치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자극적인 언사에 일말의 쾌감을 느끼거나 안심감을 얻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음침한 어둠과 손잡고 심지어 공모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적’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가 처한 나쁜 상황의 원인이라 뒤집어 씌우거나, 두려움을 부추기면서 자기방어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막힌 담’을 더 높이 쌓고 증오가 증오를 낳는 악순환 속에서 한 줌의 자존감을 구하려는, 지극히 편협하고 비뚤어진 삶, 미성숙한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8년이나 누워지낸 병자를 고치시기에 앞서 굳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5:6)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정말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그저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서는 우리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부정적인 힘이 지배하는 어둠 속에 숨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참 빛을 누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낫고자 원해야만 어둠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인류사는 온갖 증오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지배가 전세계를 뒤덮고 억압과 수탈의 구조 속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과는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만이 전부인 갓난아이 시절로, 혹은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서 안달인 듯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말씀이 가르쳐주듯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이기는 참된 빛입니다. 어떤 증오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빛입니다. 어둠 속으로 퇴행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빛을 향해 성숙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ヨハネの手紙一 2章7節~11節〉

愛する者たち、わたしがあなたがたに書いているのは、新しい掟ではなく、あなたがたが初めから受けていた古い掟です。この古い掟とは、あなたがたが既に聞いたことのある言葉です。しかし、わたし

は新しい掟として書いています。そのことは、イエスにとってもあなたがたにとっても真実です。闇が去って、既にまことの光が輝いているからです。「光の中にいる」と言いながら、兄弟を憎む者は、今もお闇の中にいます。兄弟を愛する人は、いつも光の中におり、その人にはつまずきがありません。しかし、兄弟を憎む者は闇の中におり、闇の中を歩み、自分がどこへ行くかを知りません。闇がこの人の目を見えなくしたからです。

〈요한1서 2장 7~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2016年6月2日 聖学院大学 全学礼拝(韓国語礼拝)